특집 : 정보격차해소 방안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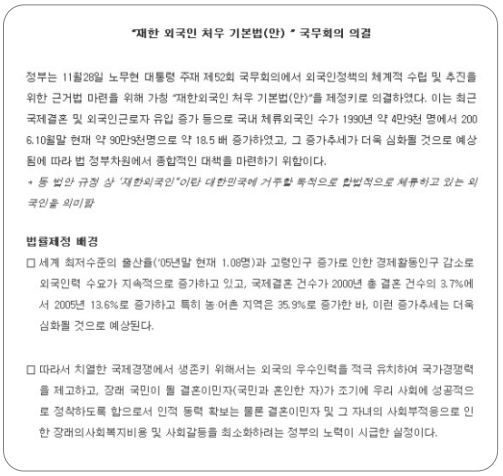
이주민을 위한 이동도서관 서비스

조 용 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joyproject@empal.com

급격히 진전하는 지식정보사회로 인해 사회구성원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보다 편리하고 인간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지식정보사회의 밝은 면의 뒤에는 정보격차라는 그늘이 깊게 드리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고 정보빈곤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지식정보사회가 내세우는 미래는 그리 밝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한 사회에서 정보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은 도시 빈민층, 농어촌 주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집단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국내 도서관계에서는 이러한 정보빈곤 집단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러운 현상이지만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들에 대한 국내 도서관계의 관심과 노력은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1)]

1) 전남과 인천지역의 일부 공공도서관들과 평생학습관들은 최근 2~3년 전부터 지역 거주 이주민들을 위해 '한글교실', '한글문화교실' 등과 같은 언어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어 국내 공공도서관계에도 이주민 서비스의 싹은 돋아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1월2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정책의 체계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근거법 마련을 위해 가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안)"을 제정키로 의결하였다. 이는 최근 국제결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990년 약 4만9천 명에서 2006.10월말 현재 약 90만9천명으로 약 18.5 배 증가하였고, 그 증가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동 법안 규정 상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의미함

법률제정 배경

□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률('05년말 현재 1.08명)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외국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제결혼 건수가 2000년 총 결혼 건수의 3.7%에서 2005년 13.6%로 증가하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35.9%로 증가한 바, 이런 증가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키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장래 국민이 될 결혼이민자(국민과 혼인한 자)가 조기에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함으로서 인적 동력 확보는 물론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장래의사회복지비용 및 사회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증가로 인해 국내 체류외국인 수가 1990년 약 4만9천 명에서 2006년 10월말 현재 약 90만9천명으로 약 18.5 배 증가하여 인구 50명에 거의 1명일 정도이며 향후 그 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 국내로 유입된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만성화된 3D 업종과 농촌사회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사회에 숨통을 틔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그들'을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과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 떠나온 모국사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필수적인 정보제공 기능의 대부분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영역에 걸쳐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 구현에 상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인종, 종교, 국적, 사상, 언어를 넘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공도서관 근본이념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의 이주민 서비스를 고려할 때, 우리는 도서관의 장서와 시설, 인력을 기반으로 한 관내 서비스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 거주 이주민들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주민들의 방문을 통한 관내 서비스도 필요하겠으나 무엇보다 이주민들을 찾아 개척하는 이동도서관 서비스의 개발과 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정착하여 생활하기 위해 한국어 습득을 포함하여 한국사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에 수월하지 않은 상태이다. 먼저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매일 장시간의 근로를 하고 있으며 휴일마저도

2) 법무부 보도자료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안) 국무회의 의결"(2006. 11. 29),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2007년 3월 11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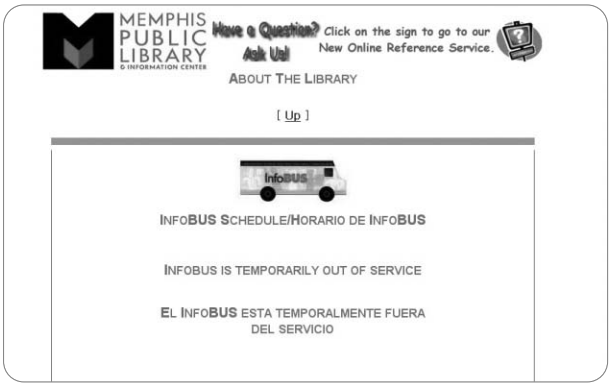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방문과 이용에 많은 장애요소를 가진 이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동도서관 기반의 이주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주 특근을 해야 하는 고된 현실에 처해 있다. 밤늦은 퇴근시간 이후나 모처럼의 휴무일에는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에 바쁘다. 또한 가족을 위한 송금이나 미래를 위한 저축을 위해 차비라도 아낄 요량으로 대부분 집과 그 근처를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언어, 피부색, 문화, 종교, 식생활 등 많은 부분에서 이질적이어서 한국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리기도 힘들어 원하는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결혼이주민들 역시 이주노동자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들은 가사와 자녀양육, 취업 또는 농사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고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선입견 등으로 필요한 정보입수에 장애를 겪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는 비교적 먼 이동거리와 부족한 교통수단의 제약과 더불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의 부재 등 고립된 생활환경으로 도시지역 거주 이주민에 비해 더욱 열악한 정보환경에 처해 있다. 또한 일부 이주민들은 '불법 체류자' 라는 신분으로 인해 공공기관 방문이나 주변 한국사람과의 접촉을 통한 정보입수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도서관에서 이주민들을 이용자로 받아들이려 해도 이주민들은 도서관을 통한 정보이용에 쉽사리 나설 수 없게 된다. 이처럼 공공도서관 방문과 이용에 많은 장애요소를 가진 이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국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동도서관 기반의 이주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3)4)] 이는 과거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인 북미지역 도서관들의 사례에서도 잘 나타났는데, 이 도서관들은 이주민들의 자료제공 뿐 아니라 언어습득, 컴퓨터활용교육, 각종 문화 프로그램 등을 이동도서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Fresno County Public Library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주로 히스패닉계)을 대상으로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962년에 처음으로 이동도서관 차량을 도입하였고 1968년에 1대를

3) 국내의 경우,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일부 소규모 민간도서관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4) 물론 지역 이주민들의 상황이나 해당 도서관의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환경이 더 나은 관내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더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인근 지역의 멕시코계 농장 노동자들을 위한 이동도서관으로 활용하였다. 이동도서관에서는 스페인어 구사가 가능한 도서관 사서가 함께 탑승하였으며 스페인어 장서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개별 수업을 위한 특별 자료들이 함께 제공되었다.[5)6)]



1974년부터 미국 뉴저지주 Cumberland County Library는 두 대의 이동도서관 차량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농장 이주노동자 캠프를 방문하였다. 스페인어 구사가 가능한 사서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차량에는 도서와 잡지 외에 운동장비, 악기, 영화, 음반 등 다양한 매체와 도구들을 구비하였으며 스페인어 구사 가능한 강사가 진행하는 "English Language Survival Program"이라는 언어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동도서관에 대한 이주민의 호응은 좋았으나 관련 연방 기금 등의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1979년에 중단되었다.[7)]

미국 테네시주 Memphis-Shelby County Public Library & Information Center는 인근 지역의 히스패닉 및 아시아계 이민자와 난민을 대상으로 한 이동도서관인 'InfoBUS'는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와 최신 정보기술을 잘 접목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시내버스 크기의 'InfoBUS'에는 영어와 이주민들의 모국어 장서 외에도 무선 인터넷 장비와 영어 학습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미국과 모국의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검색, 전자도서, 컴퓨터 활용 교육, 데이터베이스 검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영어교육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바코드 스캐너와 영수증 출력기 등을 구비하여 자료대출과 회원가입도 처리하고 있다.[8)9)]

5) Rachael Naismith, "Library Service to Migrant Farm Workers," Library Journal, Vol.114, Issue.4(1989), pp.52-55.
6) Rachael Naismith, "The Moveable Library," Wilson Library Bulletin, Vol.57, No.7(1983), pp.571-575.
7) ibid.
8) Bobby King, "This Is Not Your Father's Bookmobile," Library Journal, Vol.125, Issue.10(2000), pp.14-17.
9) Damone Virgilio, "Servic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ookmobiles & Outreach Services, Vol.6, No.2(2003), pp.7-15.

공공도서관들, 특히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단 지역 인근 도서관과 농어촌 지역 도서관에서는 이주민을 위한 이동도서관 서비스의 도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Toronto시의 경우, 250만 인구 중 절반 가량인 120만명이 이주민인데 그들을 위해 Toronto Public Library 시스템은 1곳의 이동도서관 중앙사무실과 3곳의 지부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5명의 직원과 2대의 이동도서관 버스, 6대의 승합차(van)를 이용해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곳과 분관 설치 기준 미충족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동도서관은 아파트단지, 쇼핑센터, 시민문화회관(community center) 등지에 정류소를 두고 있는데 연간 대출권수가 48만권에 이를 정도로 왕성한 이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0]

이처럼 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이동도서관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에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정착국가 언어와 모국 언어로 된 도서관 장서, 언어교육, 컴퓨터 이용, 인터넷 접속, 각종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제 우리사회에도 100만명 규모의 이주민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도서관들, 특히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단지역 인근 도서관과 농어촌 지역 도서관에서는 이주민을 위한 이동도서관 서비스의 도입을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11] 이동도서관 운영은 개별 공공도서관의 상황에 맞도록 이주민 전용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와 병행하여 운영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존 서비스에 필요한 장서와 시설, 인력, 안내자료 등을 추가하고 이주민 거주지역에 정류장을 신설하는 등 현행 이동도서관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을 위한 이동도서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을 위한 이동도서

10) Arlene Chan, "Urban Bookmobile Services of the Toronto Public Library," Bookmobile and Outreach Services, Vol.4, No.2(2001), pp.31-32.

11) 『2006 한국도서관연감』에 의하면 2005년말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들에서는 124대의 차량을 통해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이동도서관들은 국내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대상도 농어촌지역, 병원, 아파트, 경찰서, 군부대 등의 도서관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기존 지역주민들로 제한되어 있다.

이주민을 위한 이동도서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출신국가와 언어, 주요 거주지, 거주규모 등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출신국가와 언어, 주요 거주지, 거주규모 등 현황파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이주민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청/군청,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그리고 관할 경찰서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지역에서 이미 이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있다. 이 단체들은 지역 이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높고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에서는 이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현황조사, 이동도서관 운영,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동도서관 홍보, 자료구입 등의 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대부분의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주민과 이주민을 병행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이동도서관의 장서구성은 국내 자료에 한정시키지 말고 가급적 주요 이주민의 언어로 된 자료를 구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2] 만일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여러 이주민 언어로 된 『외국인노동자 문화가이드북』[13]과 이주민 언어와 한국어로 된 사전, 한글학습 교재, 인터넷을 통해 출력한 해당국가의 언론기사 등을 준비할 수 있으며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읽을만한 어린이 도서도 구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넷째, 이동도서관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 신규 차량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서관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현실성 있게 선택되어야 한다. 대형버스는 도서관 장서 외에 각종 컴퓨터와 인터넷 장비[14]와 도서대출 등 도서관 업무 관련 장비. 열람좌석 등을 구비할

12) 사실 개별 공공도서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 등을 비롯해 여러 책임있는 기관에서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에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13) 이 책에는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 의식주 및 의료・교통 등 일상 편의사항, 한국에서의 볼거리・먹거리・놀거리・살거리, 나라별 문화・종교적 특징과 차이점 등이 실려 있으며, 한글판과 영어판 외에 중국,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이란 등의 언어로 제작되었다. 향후 문화관광부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 웹사이트와 관련 영상물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다.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 2007년 3월 12일 접속.

14)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해 컴퓨터는 desktop보다는 노트북 컴퓨터(laptop)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이동도서관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방식은 이동통신을 활용한 무선 인터넷 접속방식으로 HSDPA(High-Speed Downlink Packet Access)이나 CDMA 2000 1x EV-DO(Evolution Data Only) 등이 있는데 현재 상용화되어 있다.

수 있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반면, 미니버스나 승합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장점이 있지만 도서관 장서를 비치하고 나면 여유공간이 별로 없다는 단점이 있다. 만일 차량의 구입이 어렵다면 장기임대하는 방식도 있다.

다섯째, 주요 이주민 언어로 된 이동도서관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을 벌여야 한다. 여기에는 홍보전단, 현수막, 이용안내문 등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제작이 어렵다면 해당 언어 전공학과나 언어 능통자 그리고 해당국가 대사관의 도움을 얻어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주민 언어 구사가 가능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동도서관을 담당하는 직원은 인사말 외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문장들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요 이주민 거주지역을 포함하는 방문 스케줄을 계획하여야 한다. 스케줄은 지역과 도서관 상황에 맞게 만들어지겠지만, 예정된 방문일정은 가급적 지킬 수 있도록 한다.